

이슈브리프

No. 2025-26

아세안공동체비전 2045와 4대 전략계획이 한국의 아세안 정책에 주는 함의

이재현

수석연구위원

2025-08-26

2025년 5월, 올해 첫 번째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정상회의에서 오랫동안 기대됐던 아세안공동체비전 2045(ASEAN Community Vision 2045, ACV 2045)가 발표됐다. 이 새로운 공동체 비전은 2015년 발표됐던 아세안공동체비전 2025(ASEAN Community Vision 2025)를 이어 향후 20년간 아세안공동체 건설을 가이드할 청사진이다. ACV 2045와 함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별 전략계획(strategic plan) 문서와 아세안연계성 전략계획(ASEAN Connectivity Strategic Plan, ACSP)도 함께 공개됐다. 기존 3대 공동체라는 축에 아세안연계성이 더해져 아세안공동체는 이제 4개의 축 체제를 갖추었다.

이런 비전과 전략계획의 내용, 구조의 변화는 향후 한-아세안 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비전과 전략계획은 아세안 내 협력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협력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 비전은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행동계획(Plan of Action)의 향후 이행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번에 발표된 문서의 내용과 방향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은 향후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네 번째 축으로 자리 잡은 연계성(connectivity) 관련 협력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번 비전에는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아세안에 대한 도전이 명시되었다. 이 도전에 대해 한국과 아세안이 어떻게 협력할지 역시 한-아세안 협력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아세안공동체비전 2045의 배경과 의의

아세안공동체비전(ASEAN Community Vision)은 아세안의 공동체 건설을 가이드하는 청사진이다. 1967년 시작된 아세안은 약 50년 만인 2015년 아세안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선언하고 모든 아세안 내 협력을 아세안공동체 건설이라는 방향으로 수렴시키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아세안공동체는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것과 같은 높은 수준의 통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아세안공동체는 아세안 회원국 사이 협력의 고도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아세안공동체 비전을 통해 회원국 간 협력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과 협력하는 대화 상대국에게는 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의 길잡이가 된다.

1997년 발표된 아세안비전 2020(ASEAN Vision 2020)은 처음으로 아세안공동체 건설에 대해 천명했고,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부문 즉,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부문을 언급했다.¹ 이를 이어 2003년 발리 선언II(Bali Concord II)은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APSC),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그리고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를 아세안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둥으로 명시하고 2015년까지 아세안공동체 건설이라는 목표를 정했다.

2025년 발표된 아세안공동체비전 2045는 2025년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아세안공동체 건설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각 공동체별로 구체적인 협력의 내용을 담은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함께 발표했다. 나아가 한국을 포함한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s) 입장에서는 이 비전이 아세안과 협력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실제로 정상회의 후 올해 7월에 열린 아세안외교장관회의(ASEAN Ministerial Meeting,

AMM)에서는 AVC 2045와 함께 연계성 전략계획을 포함한 3대 공동체 전략계획이 대화상대국과 협력을 가이드하는 기본 문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²

이에 앞서 2015년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공동체를 선언하면서 향후 10년간 이 공동체 건설을 가이드할 첫 번째 청사진으로 아세안공동체비전 2025(ASEAN Community Vision 2025)를 마련했다. 이 최초 공동체 비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5년 아세안 개별 국가의 국내뿐만 아니라 아세안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은 크게 바뀌었다. 무엇보다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국제질서와 경제질서의 혼란, 기후변화, 공급망 문제, 디지털 무역을 포함한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 등 새로운 도전들이 크게 증가했다. 아세안공동체비전 2045와 공동체별 전략계획은 이런 새로운 환경과 도전을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반영할 필요에서 출발했다.

2025년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공동체비전 2045가 발표된 것은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는 아세안 의장국 임기 내에 의장국은 중요한 흔적을 남기기를 원한다.³ 말레이시아도 올해 의장국을 맡으며 이런 점을 염두에 두었다. 아세안공동체비전 2045는 이런 점에서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아세안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기억될 것이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과거 몇 차례 의장국 순번에 아세안의 비전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7년 의장국으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비전 2020을 발표했다. 2015년에는 아세안공동체를 선언한 것과 더불어 아세안공동체비전 2025를 발표할 때 의장국을 맡았다. 그리고 이번 2025년에는 다시 아세안공동체비전 2045를 발표하는 의장국이 된 것이다.

아세안공동체비전 2045의 중요 변화

아세안연계성을 포함한 아세안공동체 4대 필라 형성과 패키지화

ACV 2045가 ACV 2025와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이 비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구조가 변화했다는 점이다. 구성요소와 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편집상의 문제를

넘어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CV 2025는 크게 3대 공동체별로 비전과 협력사업을 나열한 바 있다. 즉,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공동체가 아세안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개의 중요한 기둥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비해 ACV 2045는 기존의 3대 공동체에 연계성을 더했다. 아세안은 ACV 2045와 함께 공동체별로 전략계획을 냈는데, 이 3대 공동체 전략계획과 더불어 아세안연계성 전략계획(ASEAN Connectivity Strategic Plan)을 함께 발표함으로써 아세안공동체는 4개의 필라로 구성되고 이 공동체비전과 4개의 전략계획이 하나의 패키지를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세안연계성은 다른 3대 공동체에 비해서 그 출발은 다소 뒤떨어졌다. 3대 공동체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것은 1997년 아세안비전 2020에서였다. 2015년 아세안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선언된 직후에는 각 공동체별로 2025년까지의 목표와 계획을 담은 청사진 2025가 제시된 바 있다. 한편 연계성이 아세안 내에서 문서화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0년 아세안연계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이 처음이었고 이는 2016년 발표된 아세안연계성 마스터 플랜 2025(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MPAC 2025)로 이어졌다. 이후 아세안연계성은 2019년 발표된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에서 인태지역에서 아세안의 4대 협력 분야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었다. 아세안 3개 공동체가 아세안공동체 혹은 통합의 세로축 즉, 날줄이라면 아세안연계성은 가로축 혹은 씨줄이 된다. 아세안연계성은 개별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를 관통하고 통합하는 이니셔티브라는 측면에서 3대 공동체를 가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정상회의에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공동체 전략계획과 함께 발표된 아세안연계성 전략계획(ASEAN Connectivity Strategic Plan, ACSP)은 몇 가지 점에서 2016년 마련된 MPAC 2025와 차이를 보인다. 2016년의 MPAC 2025는 특별히 아세안연계성 혹은 아세안공동체 관련된 도전 요소나 아세안공동체를 둘러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반면 2025년의 ACSP는 아세안공동체와 연계성을 둘러싼 새로운 트렌드를 7개 항, 즉 1) 디지털 전환, 2) 기후변화와 순배출 제로 전환(net zero

transition), 3) 공급망의 재형성, 4) 도시의 확장과 중급 도시(middle-weight cities)의 등장, 5) 지역주의의 강화, 6) 금융의 혁신, 7) 인구의 노령화로 정리하고 있다.

MPAC 2025는 전략적 목표로 5개 항의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이 5개 항은 1) 지속가능한 인프라, 2) 디지털 혁신, 3) 원활한 물류, 4) 규제 우수성, 5) 인적 이동이다. ACSP는 이런 MPAC 2025의 전략적 목표에 1개 항을 추가해서 6개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한다. 이 전략적 목표는 1) 지속가능한 인프라, 2)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3) 디지털 혁신, 4) 원활한 물류와 공급망, 5) 규제 우수성과 협력, 6) 인적 연계성 등이다. 유일한 차이는 도시 개발에 관한 것이다. 도시 개발에 관한 연계성 협력은 MPAC 2025에서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항목에 '아세안 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 개발'이라는 항목으로 포함되었던 것을 별도의 전략 목표로 확대 발전시켜 도시와 농촌의 발전 두 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협력 분야와 주제의 등장

ACV 2025와 2045는 아세안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슬로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각 비전이 발표될 당시 아세안이 처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ACV 2025에서 아세안은 '규칙 기반, 사람 지향, 사람 중심의 아세안(Rules-Based, People-Oriented, People-Centred ASEAN)'을 지향했다. 그리고 아세안공동체의 슬로건으로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One Vision, One Identity, One Community)'를 내걸었다. 특히 2015년 아세안공동체가 처음 선언된 자리에서 발표된 ACV 2025는 공동체 건설의 취지를 반영해 아세안이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반면 ACV 2045는 2045년까지 '회복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사람 중심의 아세안(Resilient, Innovative, Dynamic, and People-Centred ASEAN)'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CV 2025에서 강조한 하나의 공동체를 대신해 아세안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의 확보 등 새로운 도전 앞에 아세안이 처한 당면과제를

강조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국제관계와 경제질서의 많은 도전 속에 위기에 처해도 이를 극복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복원력(resilience)은 아세안 내 협력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되었는데 이 복원력이 아세안의 미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상정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아세안에 대한 도전과 위협 인식이다. ACV 2025은 특별히 아세안에 대한 도전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반면 ACV 2045에서는 아세안공동체에 대한 도전을 별도의 항목인 “Challenges and Opportunities”라는 섹션으로 만들어 포함했다. 그리고 그 안에 17개의 아세안공동체 건설에 대한 도전을 나열하고 있다. 2015년에 발표된 ACV 2025에 비해 ACV 2045에서는 아세안공동체에 대한 도전을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공동체 건설의 전략을 이런 도전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부록 1 참조).

2015년에 발표된 ACV 2025와 2025년에 발표된 ACV 2045 사이에는 10년의 시간 간극이 있다. 이 10년간 아세안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ACV 2045의 도전과 위협 인식은 이런 큰 환경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정치·안보에서 강대국 경쟁과 사이버 안보, 경제에서 디지털화, 인공지능, 보호주의, 공급망, 사회·문화 부문에서 팬데믹 등은 ACV 2025가 만들어진 2015년 당시 상황에서는 아세안의 중요한 관심사 혹은 아세안공동체에 대한 도전 요소는 아닌 새로운 도전 요소들이다.

더 중요한 부분은 3개 공동체의 전략계획과 아세안연계성 전략계획은 이런 도전 요소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이런 도전 요소에 대응한 아세안 공동체의 전략 목표(strategic goal), 실행 목표(objective), 그리고 전략 조치(strategic measure)를 명시하고 있다.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 전략계획은 제도적 강화 항목을 포함해 모두 10개의 전략 목표 아래 23개의 실행 목표, 그리고 177개의 전략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아세안경제안보공동체 전략계획은 모두 6개의 목표, 44개의 실행 목표, 그리고 192개의 조치를,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전략계획은 12개 목표 아래, 20개의 실행 목표, 그리고 112개의 조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아세안연계성 전략계획 역시 유사한 구조로 6개의 전략

목표, 14개의 실행 목표, 그리고 49개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전략계획은 각각 이행계획과 중간점검과 관련된 항목들을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부록 2 참조).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에 대한 합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한-아세안 관계는 현재 두 개의 중요한 현안이 있다. 현재 한국은 2024년 만들어진 한-아세안 CSP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PoA)에 관해 아세안과 막 합의를 마쳤다.⁴ 더 중요하게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현재 새 정부의 아세안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외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새 정부의 아세안 정책을 동남아 국가들이 주시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아세안이 향후 아세안공동체 건설을 위해 제시한 청사진은 아세안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며,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앞서 분석한 ACV 2045와 공동체별 전략계획, 연계성 전략계획의 내용을 감안해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3대 공동체와 함께 이제 4대 필라로 공식화된 아세안연계성 관련 협력에 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과 아세안 사이 실질 협력은 막 합의된 한-아세안 CSP의 PoA 문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향후 이 PoA의 이행에 있어 3대 공동체별 협력 사업과 함께 연계성 관련 협력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어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연계성 협력에서 한국만의 장점을 찾아 부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연계성 협력은 MPAC 2025와 ACSP 두 개 모두 하위지역(sub-regional) 단위의 협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다. 아세안 대화 상대국 중에서 아세안 해양부 혹은 '빔프-이아가(Brunei Darussalam-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BIMP-EAGA)' 하위 지역 협력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⁵ 이런 한국의 장점을 살려 BIMP-EAGA와 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

분야별로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연계성 관련 한-아세안 협력을 하나로 모아 한-아세안연계성 협력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묶어내고 한-아세안 사이 이미 많은 연계성 관련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작업도 중요하다.⁶ 아세안연계성 협력의 세 번째 전략 목표에 해당하는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2024년부터 한-아세안 디지털혁신플래그십(Korea-ASEAN Digital Innovation Flagship, KADIF)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⁷ 디지털 분야에서 이미 KADIF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세안연계성에서 디지털 분야를 한국이 주도하는 분야로 인식시킬 필요도 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한-아세안 협력은 한국이 아세안을 지원하는 시각에 입각해 이루어졌다면 이제 한-아세안 협력을 좀 더 동등한 기반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협력으로 인식을 바꾸고 접근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CV 2045와 공동체, 연계성 전략계획은 빠르게 바뀌는 전략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극적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미중 경쟁, 공급망, 자원 안보, 녹색-청색경제를 포함한 기후 전환, 인공지능, 고령화 등 새로운 분야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한국이 아세안에 비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앞서 있기는 하지만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출발점은 그리 다르지 않다. 즉, 한국이나 아세안 모두에게 이런 분야의 도전은 새로운 도전이란 의미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은 한국은 아세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과 아세안이 같은 높이에서 함께 전략을 모색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와 같이 한국이 아세안을 지원해 준다는 인식으로 이런 새로운 분야에 접근하게 되면 쉽게 한-아세안 협력이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또한 아세안 입장에서도 역효과를 내기 쉽다. 따라서 한국과 아세안 사이 구체적인 협력 어젠다를 구상하고 논의할 때 1) 한국이 명확히 앞서 있어 아세안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분야와 2) 한국과 아세안이 동등한 기반 위에서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분야를 잘 구분하고 이런 서로 다른 접근법을 반영한 인식하에 협력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이익이 수렴하는 분야에서 대화를 심화하고, 공동의 전략을 모색하는 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ACV 2045와 공동체별 전략계획에 드러난 것처럼 미중 경쟁은 아세안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강대국 경쟁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지역의 전략적, 경제적 환경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국과 아세안 모두에게 중요하다. 미중 강대국 경쟁이 가져온 부정적 영향, 즉 양자 사이 선택의 압력과 지역 전략 환경의 불확실성을 견여내는 일은 한국과 아세안의 이익에 부합한다. 강대국 경쟁의 부작용을 차단하고 지역 국가들의 자율성과 이익을 극대화하며 안정된 지역 질서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전략 대화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안정된 지역 환경과 질서를 만들어내거나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보조를 맞추려고 할 때 한국은 반드시 아세안 플러스(ASEAN+)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아세안과 전략적 협력은 양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다른 지역적 협력 대상인 일본, 호주와 같은 지역 중견국, 그리고 지역의 다자협력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아세안 전략을 고민할 때 양자를 넘어 지역 중견국인 일본, 호주와 어떻게 아세안 관련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력할지, 지역 다자 메커니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입체적으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일본, 대호주 전략, 지역 다자 협력 전략,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대한 전략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과제다.

부록 1. ACV 2045에 나타난 아세안공동체에 대한 도전

분야	도전 요소
정치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태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의 유지 ● 강대국 경쟁 ● 사이버 안보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화와 미래 직업에 대한 영향 ● 인공지능 ● 보호주의 강화와 무역, 투자에 대한 장벽 ● 공급망 복원력 ● 블루 이코노미(해양 경제)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물, 에너지 안보 ● 빈곤과 발전 격차, 자원 부족 ● 자연재해 ● 기후변화, 환경, 생물 다양성, 녹색 경제로 이행 ● 팬데믹, 전염성/비전염성 질병 ● 인구증가, 고령화, 이민 ● 취약계층 포용 ● 여성과 청소년 권리 강화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연계성

자료: ACV 2045를 참고해 저자 작성, 분야별 구분은 저자의 구분.

부록 2. 각 공동체와 연계성 협력의 전략 목표

공동체	전략 목표(strategic goals)	구조
정치안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화롭고 안정되고 안전한 지역 기반 2. 아세안 주도의 제도를 통한 아세안 중심성 확보 3. 지역, 글로벌 이슈에서 아세안의 입장 반영 4. 지정학적 갈등, 강대국 경쟁 속 지역 아키텍처의 주도 5. 규칙기반 다자제도와 국제법에 입각 평화와 안보에 공헌 6. 평화, 자유, 중립의 아세안과 아세안 비핵시대 조약 7. 국제법과 국제해양법에 입각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8.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이행 9. 다양성 존중과 민주주의, 법치, 자유, 인권, 사회적 정의 10. 제도적 강화 	<p>전략 목표: 10개 실행 목표: 23개 전략 조치: 177개</p>
경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된 공동 시장과 생산기지 2. 기후변화 대응 요소의 주류화 3.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분야별 협력 4. 글로벌 아세안 어젠다 강화 5.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 확보 6. 모두 함께 하는 사람 중심의 아세안 	<p>전략 목표: 6개 실행 목표: 44개 전략 조치: 192개</p>
사회문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지향과 사람중심 공동체 2. 배려하는 공동체 - 취약계층 3. 교육을 통한 인구 승수 효과 극대화 4. 건강한 아세안공동체 5. 인간안보 6. 아세안 공동의 정체성 7. 여성의 권리 강화 8. 공동체 건설에 대한 청년의 기여 9. 문화 유산과 전통에 대한 가치 부여 10. 스포츠를 통한 평화, 포용, 건강, 교육 11. 미래 위기와 장기 도전에 대응하는 복원력 있는 공동체 12. 녹색 경제, 청색 경제를 통한 녹색 아세안 공동체 	<p>전략 목표: 12개 실행 목표: 20개 전략 조치: 112개</p>
연계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속가능한 인프라 2.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3. 디지털 혁신 4. 원활한 물류와 공급망 5. 규제 우수 사례와 협력 6. 인적 연계성 	<p>전략 목표: 6개 실행 목표: 14개 전략 조치: 49개</p>

자료: APSC SP, AEC SP, ASCC SP, ASEAN Connectivity SP를 토대로 저자 작성.

부록 3. 아세안공동체 관련 주요 문서 목록

문서 명칭	연도
ASEAN Vision 2020	1997
Bali Concord II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II)	2003
ASEAN Community Vision 2025	2015
ASEAN Community Vision 2045	2025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Blueprint	2009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09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09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Blueprint 2025	2016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2015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	2016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Strategic Plan	2025
ASEAN Economic Community Strategic Plan	2025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Strategic Plan	2025
Masterplan on ASEAN Connectivity	2010
Master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2016
ASEAN Connectivity Strategic Plan	2025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2019

부록 4. 약어표

약어	명칭	한글 명칭
ACV	ASEAN Community Vision	아세안공동체비전
ACSP	ASEAN Connectivity Strategic Plan	아세안연계성 전략계획
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경제공동체
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APSC SP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Strategic Plan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 전략계획
AEC SP	ASEAN Economic Community Strategic Plan	아세안경제공동체 전략계획
ASCC SP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Strategic Plan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전략계획
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아세안연계성 마스터 플랜
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PoA	Plan of Action	행동계획
AMM	ASEAN Ministerial Meeting	아세안외교장관회의
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KADIF	Korea-ASEAN Digital Innovation Flagship	한-아세안 디지털혁신플래그십

저자

이재현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이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학사, 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고, 호주 Murdoch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이후, 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2012년까지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서 객원교수를 지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아 정치, 아세안,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이다. 현재 한국동남아학회 부회장, 해양경찰청의 자문위원이고,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최근 주요 연구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인도-퍼시픽, 새로운 전략적 공간의 등장(2015), 북한과 동남아시아(2017),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2018),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남방정책의 역할(2018),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공통분모와 신남방정책(2019), 비정형성과 비공식성의 아세안 의사결정(2019), 피벗: 미국 아시아전략의 미래 (2020, 역서), G-Zero 시대 글로벌, 지역 질서와 중견국(2020), "Southeast Asian Perspec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 SWOT Analysis" (2022).

¹ 아세안에서 발표한 공식 문서는 각주형태가 아니라 모두 부록 3에 문서의 명칭과 발표 연도를 별도 명시한다.

² ASEAN. 2025. "ASEAN Minister's Decision on Enhancing ASEAN Relations with External Parties"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5/07/Adopted-ASEAN-Foreign-Ministers-Decision-on-Enhancing-ASEAN-Relations-with-External-Parties.pdf>

³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의장국이었던 1976년, 2003년 그리고 2011년 아세안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각각 발리 선언 I, II, III을 발표했다. 이 선언들은 각각 아세안 정상회의의 정례화, 아세안공동체의 3대 기둥, 그리고 아세안의 글로벌 차원 역할 확대라는 중요한 제도적 발전을 만들어 냈다.

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laysia. 2025.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ASEAN-Republic of Kore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6-2030)." <https://www.kln.gov.my/web/guest/-/plan-of-action-to-implement-the-asean-republic-of-korea-comprehensive-strategic-partnership-2026-2030->

⁵ 한국과 BIMP-EAGA사이 협력에 대해서는 한-해양동남아 협력 포털(<https://www.bimp-korea.org>)을 참고.

⁶ 한국 정부와 아세안 사이 다양한 층위의 연계성 관련 협력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실질 협력에 있어서도 한국의 대아세안 공적 개발 원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인프라, 교통 등 연계성과 관련이 있는 협력이다. 또한 한국은 약 연 1,400만 달러에 달하는 한-아세안협력기금의 상당한 부분을 아세안연계성 관련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본격화." 보도자료. 3월 11일.